

■ 제주지법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첫 무죄 선고

“유채꽃이 피었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김두황씨 반정부 활동 죄목 목포형무소에서 수감생활 김씨 “감격스럽다” 소감

재판부 “이번 무죄판결이 응어리 푸는 출발점 되길”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 한 4·3 수형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70여년 제주 4·3역사를 통틀어 4·3수형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한 김두황(9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것에 해당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미리 준비해온 글을 읽었다.

재판부는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이제 갖 스무살을 넘긴 청년이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옥살이를 했다”며 “이로 인해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됐고, 삶은 피



제주지법이 7일 반정부 활동 등의 죄목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김두황씨가 제기한 4·3 수형인 일반재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선고후 김씨와 소송 관계자들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폐해됐다”고 했다. 이어 “92세인 피고인은 그동안 하소연하지 못하고 자신을 탓하거나 운명으로 여기며 오늘에 이르렀다”면서 “응어리의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응어리를 푸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김씨를 위로했다.

김씨는 1948년 9월 25일 난산리 소재 김천말씨의 집에서 주민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사흘 뒤에는 무장대에게 쫓살 1되를 제공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김씨는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 생활을 했다.

과거 4·3 수형인에게 공소 기각 판

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김씨처럼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일반재판을, 지난해 1월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끈 4·3수형인 18명은 군사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소 기각은 검사의 공소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의 실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무죄와 공소기각 모두 피고인의 권리를 구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김씨는 무죄 판결에 감격스러워했다. 김씨는 “어려운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라는 말로 소감을 전했다.

김씨의 딸은 아버지 옆에서 내내

눈물을 흘렸고, 재판을 도운 4·3도민연대 관계자는 ‘김두황 무죄’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당초 김영숙(90)씨 등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한편 4·3 광풍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은 2530명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집단 처형(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됐다. 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은 340여 명으로 이들 중 3분의2 이상이 심문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의 세우는 계기되길”... 정치권, 4·3단체 “환영”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

도내 정치권과 4·3단체가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첫 무죄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4·3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두황 할아버지의 무죄 판결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4·3유족들과 제주도민의 염원이며, 제주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4·3 생존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오늘 김두황 할아버지의 재심재판 무죄 판결

은 제주4·3 당시의 실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재판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해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되었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생존수형인 사상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역시 “재판부의 결단을 4·3희생자 유족 및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제주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재판으로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4·3사건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돼 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3일 제주여행

도방역당국 역학조사 착수

타지역 확진자의 제주 방문 사례가 추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서울시 동작구 확진자 A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작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6일 서울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다음 날인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A씨는 확진 판정 이전인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은 A씨에 대해 역학조사 범위 내 정확한 제주 체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사 중이다. 도는 이들과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예산감시시민모임 ‘곰진돈’ 원지사 국고손실 혐의 고발

제주도가 홍보 소책자 등을 발행해 제2공항 건설사업을 홍보한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을 고발했다.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곰진돈’은 7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와 이상현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곰진돈’은 7일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지사와 이상현

이들은 고발장에서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가 9~11월 제2공항 찬성 홍보물을 제작하여 약 37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곰진돈은 “중립을 지키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제주도정이 역할을 저버리고 제2공항 찬성여론을 조성하는 행동을 했다”며 “심지어 확정되지 않은 제2공항 사업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 공보관 등 관련 부서 공무원총지원을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동지역 호텔 옥상서 불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옥상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약 20분만에 진화됐다. >> 사진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공기 순환 용도의 구조물과 물탱

크가 불에 타면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소방당국은 옥상 구조물 철거를 위해 응급 작업을 하던 중 불타가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이호해수욕장 변사체 발견

이호해수욕장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7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9분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백사장에 사람이 었드려 있다

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확인 결과 변사체는 30대 초반의 도민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가족·주변인 상태 조사 등을 벌여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text: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Includes benefits like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and '강력한 라임효과'. Contact inf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Advertisement for Ino-Pes fertilizer. Features a diagram showing '이노페스' components and benefits. Text: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Includes a table of ingredients and contact info: (주)포트라 제주지사.